천주교 아부다비 공동체 어린이 미사



2024년 02월 17일

성경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말씀이신 하느님, 당신은 바로 제 곁에 있고 제 입에 있고 제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 아멘

코린토1서 12장

<모두 자리에 앉아 차분한 마음으로 미사를 준비해 주십시오>

성경 읽은 후 드리는 기도

말씀이신 하느님, 당신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시작 기도 - 삼종 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十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룀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입당성가 -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참회 예절

- 十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 十 전능하신 하느님과
- ◎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자비송

- 十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十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十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본기도

十 전능하신 하느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 시기를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9,8-15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들일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제2독서

Ⅲ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3,18-22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느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 곧 여덟 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형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 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계시는데,

그분께 천사들과 권력들과 권능들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4,4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2-15

그때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래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十 한 분이신 하느님을
-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하느님에게서 나신 참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보편 지향 기도

박 ○ ○ 프란치스코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하느님,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받고

동등한 권리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김 ○ 이 레오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우리나라를 보살펴 주세요.

세상의 모든 나쁜일로 부터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강00 크리스티나

전쟁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하느님,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들을 위해

하루 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이이리디아

한국에 계시는 우리 모두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멀리 떨어져 사느라 자주 만날 수 없어 보호자 이신 주님께 기도드려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기쁜 추억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분들을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주세요.

빵과 포도주 봉헌

봉헌 성가 - 새로운 계명















예물 준비 기도

◎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감사 기도

- 十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 十마음을 드높이
- ◎ 주님께 올립니다.
- 十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찬 그 영광 높은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높은데서 호산나-높은데-서 호산나.

신앙의 신비

十신앙의 신비여!

◎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 하나이다.

주님의 기도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평화 예식

十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 十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 +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 ◎ 아멘

하느님의 어린양

◎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영성체 전 기도

◎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체 성가 - 우리와 함께 주여



우리 와함 께 주여 - 머무 르십 시 오



식탁 에같 이 앉아 - 빵을 나눕 시 다



영성체 후 묵상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영성체 후 기도

◎ 아멘.

동지사항

강복

十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十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호)

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이에게 강복하소서.

◎ 아멘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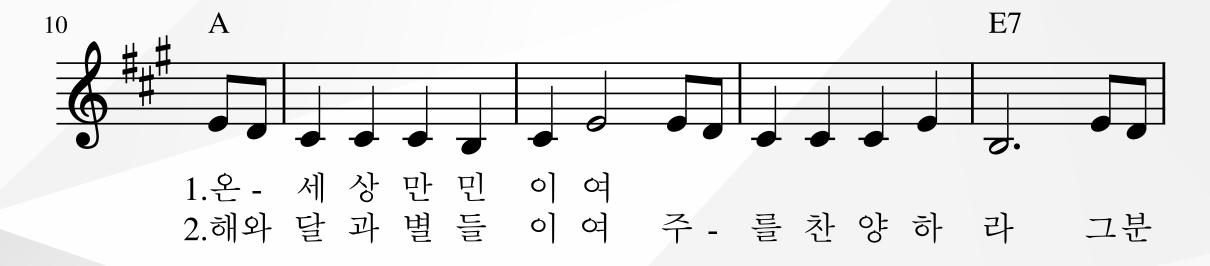
十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 - 세상은 아름다워라









마침기도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현존 45주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이땅으로 부르시어 신앙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광야의 기억을 되살리시고 이윽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심에 찬미와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랐던 사막의 교부들과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을 찾고 갈망하며 주님만을 위하여 자신을 봉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중동의 한인 공동체들이 신앙으로 일치된 양 떼가 되게하시어 그 누구 하나도 잃지 않고 저희 모두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주소서.

주님, 저희가 언제나 말씀과 성체로 힘을 얻고 성모 마리아의 보호를 받게 하시며 아씨시의 프란치스코를 본받아 평화를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이 아라비아의 성모 마리아여,
-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미사가모두끝났습니다

은혜로운 한주 되세요.